

“모두가 ‘정조국’ 되어 그라운드 누벼라”



광주 FC 남기일 감독의 주문
주축 선수들 무더기 이적...신진들로 시즌 꾸러
“나이 잊고 팀 이끈다 생각으로 자신있게 경기”

“내가 정조국이다!”
2017시즌 또 다른 도전에 나서는 K리그 클래식 광주 FC 남기일(사진) 감독의 외침이다.
남 감독은 매년 ‘제로 베이스’에서 새 시즌을 맞고 있다. 시민구단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속속 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대신 ‘가능성’의 어린 선수들로 많은 자리가 채워지고 있다.
올 시즌도 판이 많이 달라졌다. 광주 공격을 이끌던 ‘득점왕’ 정조국이 강원 FC로 이적했고, ‘캡틴’ 여름은 임대로 자리를 비웠다. 등직하게 수비라인을 지켜주던 정호정과 장신 수비수 오도현도 각각 부산 아이파크와 성남 FC로 떠났다. ‘싸움닭’ 김찬동은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가 됐다. 김진환(상무), 조용태(서울 이랜드)의 공백도 있다.
주전 라인업을 다시 새로 써야 하는 상황, 여기에 ‘경험 부족’이라는 큰 결림도 있다.
1983년생 이종만이 팀의 유일한 30대이자 ‘최고참’이다. ‘넘버 2’는 1990년생 조

성준과 본즈다. 최고참과 벌써 7살 차이가 난다. 막둥이는 1997년생인 김시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8명의 신인 선수 포함 15일 현재 계약이 완료된 광주 선수 29명의 평균 나이는 24.2세에 불과하다. 경험 많은 형님들과 싸워야 하는 거친 무대이기 때문에 남 감독은 “나이를 잊어라”고 말한다.
남 감독은 “어린 선수들이 많다. 어리고 해서 누가 해주겠지, 형들이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앞에 나서서 자신이 처리해야 한다. 팀을 이끈다는 생각으로 자신 있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고 말했다.
화려한 스타플레이어도, 경험 많은 베테랑도 아니지만 주인공이 되어 마음껏 그라운드를 누벼라는 남 감독의 이야기다. 광주에 쏟아지는 우려의 시선도 선수들의 자신감과 책임감 그리고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이겨내겠다는 각오다.
남 감독은 “정조국이 빠지면서 걱정하는 시선들이 있다. 우리 선수들이 내가 정조국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결정지어야겠

다는 마음으로 뛰어야 한다. 여기에 있는 선수들이 중요하다”며 “격정거리가(정조국의 공백)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 팀이 뭉치는 힘으로 이겨내 왔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즌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쟁쟁한 유럽팀과의 연습경기는 좋은 예방주사가 됐다는 평가다.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어린 선수들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남 감독. 지난 포르투갈 전지훈련에서 보여준 주현우의 성장세도 반갑다.
남 감독은 “땀기를 보여주려는 모습이 있었다. 열심히 했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주현우를 포르투갈 전지훈련의 MVP로 언급했다.
지난 14일 프로필 촬영으로 귀국 후 첫 일정을 소화했던 광주는 15일 나주로 장소를 옮겨 다시 시즌 준비에 나섰다. 오는 24일까지 이어질 이번 전지훈련은 3월4일 예정된 대구 FC와의 시즌 개막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남 감독은 “시차나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몸 관리에 신경 써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전술, 전략적인 부분을 다들했다”며 “대구에 초점을 맞추겠다.(대구가) 우리가 승격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다. 선수 구성도 그대로고 간절함에 좋은 외국인 선수까지 있어서 어려운 승부가 될 것이다”며 시즌 첫 단추를 잘 끼우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벌써 아프냐...팬도 아프다

KIA 오키나와 캠프 부상 경계령
한기주 조기 귀국...김진우 무릎 다쳐

KIA 타이거즈의 오키나와 캠프에 부상 경계령이 내려졌다.
KIA는 지난 14일 일본 아쿠르트의와 경기를 시작으로 연습경기 일정에 돌입했다. 실전체제로 전환되면서 ‘부상’이 캠프 운영의 주요 변수가 됐다.
니혼햄과의 세 번째 연습경기가 진행된 16일 조기 귀국자가 발생했다.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던 투수 한기주가 이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기주는 연습경기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밀 검진을 받은 뒤 국내에서 재활 과정을 밟게 된다.
연습경기 중에 발생하는 ‘부상’도 고민거리다. 한기주가 귀국한 16일 김기태 감독은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날 니혼햄과의 연습경기 선발로 등판한 김진우가 2구 만에 무릎을 다치면서 마운드를 내려온 것이다. 초구에 150

km의 강속구를 던지며 경기를 시작한 김진우는 투수쪽 강습 타구로 연결된 두 번째 공에 오른쪽 무릎 부위를 맞고 쓰러졌다.
김진우는 이번 캠프에서 패조의 컨디션 보이며 선발 싸움에 불을 붙이고 있던 만큼 KIA는 노심조사 김진우의 검진 결과를 기다렸다.
다행히 검진 결과는 단순 타박상. 나고 시립북부병원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 뼈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은 받았지만 KIA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김진우의 상태를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다.
연습경기 일정이 전개되면서 플레이 도중 부상 위험도 커졌고, 경쟁에 따른 선수들의 오버 페이스도 걱정이다. 반환점을 앞둔 KIA 캠프에 ‘부상조심’이 우선순위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남녀 축구대표팀 20일 ‘킵 오프’

슈틸리케 감독, 월드컵 본선행 구상 밝히고
여자대표팀 ‘평양 원정’ 대비 훈련 돌입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남자축구 대표팀과 2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도전하는 여자축구 대표팀이 새해 본격 출항을 위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유럽에서 두 달여의 휴가를 보낸 울리 슈틸리케 남자대표팀 감독은 오는 20일 오후 12시5분 인천공항으로 귀국한다.
슈틸리케 감독은 임국 직후 공항 인터뷰를 통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슈틸리케호는 다음 달 23일 중국과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6차전 원정경기에서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리아와 월드컵 최종예선 7차전 홈경기를 치른다.
슈틸리케 감독은 다음 달 13일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전에 기존 대표팀 자원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새로운 K리거를 발굴하기 위해 국내 팀들의 경기를 관찰할 예정이다.
귀국 다음 날인 21일 FC서울의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가 열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고, 다음 달 4일 K리그 개막에 맞춰 주요 경기장을 찾는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슈틸리케 감독이 귀국 직후부터 최경에 대표팀을 꾸

리기 위해 선수들을 점검하는 빠른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면서 “손흥민을 비롯한 해외파 외에 국내 K리거들도 체크할 대상”이라고 전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도 오는 4월 ‘북한 평양 원정’으로 열린 2018 아시안컵 예선에 대비해 본격 탐금 집에 나선다.
여자대표팀은 슈틸리케 감독이 귀국하는 20일 오후 2시 파주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에 모여 훈련을 시작한다. 윤덕여호는 아시안컵 예선에 앞서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리히셀 대회로 열리는 키프로스컵에 출전해 실전 경기력을 끌어올린다.
키프로스컵에는 북한도 참가하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미리 보는 남북대결’이 성사될 수도 있다. 한국은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스코틀랜드와 B조에 편성돼 있는 데 조 1위를 차지할 경우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와 같은 A조에서 1위가 유력한 북한과 결승 대결을 벌인다.
윤덕여호는 대표팀 소집 이틀 후인 22일 키프로스로 떠나며, 키프로스컵 종료 후 해산했다가 3월 말 아시안컵 예선 준비를 위해 다시 모인다.
/연합뉴스



16일 스페인 마드리드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16-2017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레알 마드리드와 나폴리 경기에서 선수들이 볼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레알 역전 드라마... UEFA 챔스 8강 청신호

나폴리 3-1 제압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클럽 레알 마드리드가 안방에서 나폴리(이탈리아)를 상대로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며 유럽축구 ‘꿈의 무대’ 8강 진출에 파란불을 밝혔다.
레알 마드리드는 16일 스페인 마드리드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홈 1차전에서 나폴리에 3-1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지난 시즌 챔피언인 레알 마드리드는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다음 달 8일 나폴리 원정으로 16강 2차전을 치른다.
선제골은 원정길에 나선 나폴리가 뽑았다. 전반 8분 나폴리 로렌조 인시네가 오른쪽 슈팅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골망을 흔들었다.
반격에 나선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 주도권을 찾았고, 18분 카림 벤제마가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벤제마는 다니엘 카르바할

이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려주자 골지역 왼쪽에서 헤딩 동점골로 1-1을 만들었다.
후반 4분 레알 마드리드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환상적인 도움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호날두는 단독 드리블로 오른쪽 문전을 돌파한 뒤 공을 뒤로 빼고, 토니 크로스가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나폴리의 골문을 꿰뚫었다. 5분 후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카를로스 카세미로가 양 팀 경합 과정에서 공이 공중으로 뜨자 오른쪽 발리슛으로 쐐기골을 꽂았다.

또 지난해 독일 분데스리가 4연패를 달성한 바이에른 뮌헨은 조별리그를 A조 1위로 통과한 아스널(잉글랜드)과 16강 홈 1차전에서 5-1 대승을 누렸다.
전반 11분 아르연 로번의 선취골로 1-0 리드를 잡은 뮌헨은 30분 아스널의 알렉시스 산체스에게 동점골을 내줬다. 하지만 최근 홈경기 14경기 연속 무패(12승2무)로 안방에서 절대 강세를 보였던 뮌헨이 후반 골 페어리드를 펼쳤다.
후반 8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역전골에 이어 티아고 알칸타라가 11분과 18분 연속골을 터뜨렸고, 토마스 뮐러가 33분 팀의 다섯 번째 골로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연합뉴스



전남 드래곤즈의 골키퍼 이호승(왼쪽부터), 수비수 최효진, 미드필더 김영욱, 골키퍼 임민혁이 2017 시즌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 드래곤즈 제공>

‘Road to ACL’ 전남 새 유니폼 공개

K리그 클래식 전남 드래곤즈가 올 시즌 착용할 새 유니폼을 공개했다.
2017 시즌을 맞아 새롭게 선보인 홈 유니폼은 고유색상인 노랑색을 바탕으로 해 어깨부분에 검정색을 배색하여 강인함을 더했다. 또한 유니폼 중앙에 ‘Road to ACL’의 의미를 담은 검정색 선을 넣어 ACL(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

그)를 향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원정 유니폼은 흰색 바탕에 장조, 신비, 고귀함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넣어 고급스런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골키퍼 유니폼은 필드 플레이어에게 강인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주황색과 하늘색으로 디자인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